

1. 다음 도구를 처음 제작하여 사용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돌아가신 아버지를 독무덤에 묻는 아들
- ② 청동 방울을 흔들며 제사를 지내는 족장
- ③ 물품을 구매하며 명도전을 지급하는 상인
- ④ 움집에서 가락바퀴로 실을 뽑아내는 모녀
- ⑤ 대장간에서 쇠로 낫을 만들고 있는 대장장이

• 제시된 자료는 갈판과 갈돌 그리고 빗살무늬토기로서 모두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 도구이다.

•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 도구나 토기의 제작 이외에도 원시적인 수공업 생산이 이루어졌다. 가락바퀴나 뼈바늘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도구가 발달하고 농경이 시작되자 주거 생활도 개선되어 갔다. 집터는 대개 움집 자리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움집의 중앙에는 불씨를 보관하거나 취사와 난방을 위한 화덕이 위치하였다. 햇빛을 많이 받는 남쪽으로 출입문을 내었으며, 화덕이나 출입문 옆에는 저장 구덩을 만들어 식량이나 도구를 저장하였다. 집터의 규모는 4, 5명 정도의 한 가족이 살기에 알맞은 크기였다.

① 청동기 시대에는 고인돌과 돌널무덤 등이 만들어졌고, 철기 시대에는 널무덤과 독무덤 등이 만들어졌다

② 청동기.철기 시대의 예술은 종교나 정치적 요구와 밀착되어 있었다. 그것은 당시 제사장이나 족장들이 사용했던 칼, 거울, 방울, 방패 등의 청동 제품이나 토제품, 바위그림 등에 반영되어있기 때문이다.

③ 철기와 함께 출토되는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은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보여준다.

⑤ 기원전 5세기경부터 철기 시대로 접어들었다. 특히,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업이 발달하여 경제기반이 확대되었다. 철제 무기와 철제 연모를 쓰에 따라 그때까지 사용해 오던 청동기는 의식용 도구로 변하였다.

정답: ④

* 간석기와 빗살무늬토기를 사용한 신석기 시대상

2. 다음 혼인 풍속이 있었던 나라를 지도에서 옳게 찾는 것은? [2점]

혼인 풍속은 미리 말로 정혼을 한 뒤, 여자 집에서 뒤편에 작은 별채를 짓는데, 그 집을 서옥이라고 부른다. …… 자식을 낳아서 장성하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 「삼국지」 위서동이전 -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②

* 서옥제와 초기 고구려

(가) 부여: 고구려와 같은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이 형수와 같이 사는 혼인 제도인 형사취수제도가 있었다.

(나) 고구려: 서옥제라는 풍속이 있었는데, 혼인을 정한 뒤 신부집 뒤쪽에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돌아가는 제도이다.

(다) 옥저: 민머느리제가 있었는데, 장래에 혼인할 것을 약속하면, 여자가 어렸을 때에 남자 집에 가서 성장한 후에 남자가 예물을 치르고 혼인을하는, 일종의 매매혼이다.

(라) 동예: 배우자를 다른 씨족에게서 구하는 족외혼(族外婚)을 엄격하게 지켰다.

(마) 마한

3.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사이버 박물관

선사 시대관

제1관 제2관 제3관

제3관

시대 개관 이 시대에는 (가)

대표 유적·유물

<보기>

ㄱ. 불교가 수용되었다.
 ㄴ. 계급이 발생하였다.
 ㄷ.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ㄹ. 재산의 사유화가 진행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청동기 시대상

• 제시된 자료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유물인 (북방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다.

생산력의 증가에 따라 잉여 생산물이 생기자, 힘이 강한 자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였다. 생산물의 분배와 사유화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빈부의 격차와 계급의 분화를 촉진하였다. 계급의 분화는 죽은 뒤에까지도 영향을 끼쳐 무덤의 크기와 겨문거리의 내용에 반영하였는데, 그 예로 고인돌은 무게가 수십 톤 이상인 덮개돌을 채석하여 운반하고 무덤에 설치하기까지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고인돌은 당시 지배층이 가진 정치 권력과 경제력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 집단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교를 받아들여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고구려, 백제, 신라)가 형성되었다.

㉡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 생활이 시작되었다. 황해도 봉산 지탑리와 평양 남경의 유적에서는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신석기 시대에 잡곡류를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다음 상황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소지 마립간 6년 7월,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침략하므로 우리 군사와 백제 군사가 모산성 아래에서 함께 공격하여 그들을 대파하였다.
- 소지 마립간 15년 3월, 백제왕 모태(동성왕)가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므로 왕은 이별찬 비지의 딸을 보냈다.

- ① 연개소문이 정권을 잡고 신라를 압박하였다.
- ② 태조왕이 옥저를 정복하고 동해안으로 진출하였다.
- ③ 고국원왕이 백제와 세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전사하였다.
- ④ 미천왕이 남쪽으로 세력을 넓혀 대동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 ⑤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펼쳐 한강 유역까지 세력을 넓혔다.

정답: ⑤

* 5세기 장수왕의 남진 정책과 나제 동맹

신라는 내물왕 때에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원조를 받으며 가까운 관계였으나, 5세기 초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반발하여 눌지왕 때에 백제(비유왕)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와 항쟁하며 간섭에서 벗어 나려 하였다(433). 그 후 소지왕 때에 백제와 혼인 동맹을 맺어 유대를 더욱 강화하였다(493).

① 당 태종이 세계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주위의 여러 나라를 침략하는 한편 고구려에도 압력을 가해왔을 때,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을 비롯한 여러 대신을 제거하고 왕의 조카를 보장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대막리지가 되어 모든 권력을 장악하였다(642). 연개소문은 강경한 대외 정책을 써서 신라와 당에 맞섰다.

② 고구려는 2세기 태조왕 때 동해안으로 진출하여 물자가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한 옥저와 동예를 정복하였으며, 요동 지방으로도 진출을 꾀하였다

③ 백제는 4세기 중반 근초고왕 때에 크게 발전하였다. 이 때의 백제는 마한세력을 정복하여 전라도 남해안에 이르렀으며, 북으로는 황해도 지역을 놓고 고구려와 대결하여 고구려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331).

④ 고구려는 4세기에 이르러 5호 16국 시대의 혼란을 틈타 활발하게 대외 팽창을 꾀하였다. 미천왕 때에 낙랑군(313)을 완전히 몰아 낸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 지역을 벗어나 남쪽으로 대동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다.

5. (가) 인물이 속한 신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가) 이(가) 당에서 돌아왔다. …… 진성여왕 8년(894)에 시무책 10여 조를 올리니 왕이 기쁘게 받고 그를 아찬으로 삼았다.
- (가) 이(가) 중국에 유학하여 얻은 바가 많았다고 생각해서 귀국한 뒤 자기의 뜻을 펴려고 하였다. 그러나 말세여서 의심과 시기가 많아 용납되지 않았다.
- 「삼국사기」 -

- ① 무열왕의 직계 자손으로 왕위를 세습하였다.
- ② 화백 회의의 장을 독점하며 왕권을 견제하였다.
- ③ 대아찬 이상의 고위 관등을 차지하여 국정을 주도하였다.
- ④ 주의 도독으로 임명되어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 ⑤ 신라 말에 골품제를 비판하며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하였다.

정답: ⑤

* 최치원과 6두품

• 통일 이후 신라와 당의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당에 건너가 공부한 유학생이 많아졌다. 그 중에서 6두품 출신의 최치원은 당의 빈공과에 급제하고 문장가로 이름을 떨친 후 귀국하여 개혁안 10여 조를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그는 은둔 생활을 하면서 뛰어난 문장과 저술을 남겼다.

• 6두품은 두품층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었다. 법제적으로 신라 17관등 중 제6관등인 아찬까지는 올라갈 수 있었으나, 제5관등인 대아찬 이상의 직위에는 취임할 수 없었으므로, 6두품을 득난(得難)이라고도 한다. 이같은 법제적 제약에 대한 6두품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제6관등인 아찬 위에 중아찬에서 사중아찬까지의 중위제(重位制)를 두기도 하였다.

진골 귀족 세력에 눌러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없었던 6두품 세력은 중대 전제 왕권과 결탁하여 상대적으로 부각되었다. 이들은 학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활동하거나 행정 실무를 맡아 보았다.

그러나 신라 말에 왕권이 약해지고 진골 세력이 득세를 하게되자 당에 유학하였다가 돌아온 6두품 출신의 일부 유학생과 선종 승려 등은 신라 골품제 사회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①, ②, ③, ④ 진골은 제5관등인 대아찬 이상의 최고 관등에 오를 수 있으며,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화백회의'의 의장(상대등)을 독점하며, 각 중앙 관서의 장관(집사부 중시(시중), 각 부의 영(令))과 지방 장관(주의 도독, 소경의 사신)을 독점하였다

중대를 연 태종 무열왕은 최초의 진골 출신 왕으로, 통일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이 때부터 태종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왕위를 세습하였다

6. 다음 자료의 불교 종파가 성행하면서 나타난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도이가 지장의 깊은 뜻을 보고 심인(心印)을 취하여 당에서 돌아와 처음으로 선(禪)을 말하였다. …… 도의와 홍척의 뒤를 이어 혜철국사, 현욱, 혜소, 도운, 범일, 무염 등이 중국에서 선을 배우고 돌아왔다. 이들은 진리의 종조(宗祖)로서, 덕(德)이 두터워 중생의 아버지가 되고, 도(道)가 높아 왕의 스승이 되었다.
- 봉암사 지증대사비 -



정답: ②

* 선종과 승탑(부도)

• 제시 자료에 나오는 도이가 당에서 귀국(821)하며 선종이 도입된 것으로 보고있다.

• 신라 말에는 경전의 이해를 통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교종과 달리, 실천 수행을 통하여 마음 속에 내재된 깨달음을 얻는다는 선종 불교가 널리 확산되었다.

선종이 널리 퍼지면서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과 탑비가 유행하였다. 팔각원당형을 기본형으로 삼고 있는 승탑(예: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전흥법사 염거화상탑, 연곡사 동부도 등)과 승려의 일대기를 비에 새겨 세운 탑비는 세련되고 균형감이 뛰어나 이 시기의 조형 미술을 대표한다. 이런 승탑과 탑비는 지방 호족의 정치적 역량이 성장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① 미륵사지 석탑: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은 서탑만 일부가 남아 있는데, 목탑의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다.

② 전(傳) 흥법사 염거화상탑

③ 다보탑: 8세기 중엽에 세워진 불국사의 대웅전 영역은 법화경의 세계를 다보여래(과거불)를 상징하는 복잡하고 화려한 다보탑과 기단이나 탑신에 아무런 조각이 없어 간소하고 날씬한 석가여래(현재불)를 상징하는 석가탑으로 구현하였다.

④ 정림사지 5층 석탑: 백제의 석탑. 미륵사지 석탑을 계승하였고 부여에 남아 있다

⑤ 분황사 모전 석탑: 신라의 분황사탑은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탑으로, 지금은 3 층까지만 남아 있다.

7. (가), (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가) 복신과 도침이 옛 왕자 부여풍을 맞아 왕으로 세우고 웅진성에 있던 당의 장군 유인원을 포위하여 공격하였다. …… 복신 등이 임존성에 주둔하다가 얼마 뒤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그의 무리를 합하여 그 세력이 매우 성하였다.
(나) 검모잡이 유민을 수습하여 궁모성으로부터 패강 남쪽에 이르러 당의 관리와 승려 법안을 죽이고 안승을 만나 한성으로 맞아들여 임금으로 모셨다.

- 「삼국사기」 -

- ① (가) - 왜의 군사적인 지원을 받았다.
- ② (가) - 안동 도호부를 요동으로 몰아냈다.
- ③ (나) - 송악에서 철원으로 도움을 옮겼다.
- ④ (나) - 중국의 5대 여러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었다.
- ⑤ (가), (나) - 당군을 몰아내기 위하여 신라의 지원을 받았다.

정답: ①

* 백제-고구려 부흥 운동

백제 멸망(660) 이후 각 지방의 저항 세력은 백제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 복신과 흑치상지, 도침 등은 왕자 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주류성과 임존성을 거점으로 군사를 일으켰다. 이들은 200여 성을 회복하고 사비성과 웅진성의 당군을 공격하면서 4년간 저항하였으나, 나·당 연합군에 의하여 부흥 운동은 좌절되었다. 이 때, 왜의 수군이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백강 입구까지 왔으나 패하여 쫓겨갔다(663).

고구려 멸망(668) 이후 보장왕의 서자 안승을 받든 검모잡과 고연무 등은 고구려의 유민을 모아 한성(황해도 재령)과 오골성을 근거지로 부흥 운동을 전개 하였다. 이들은 한 때 평양성을 탈환하기도 하고, 후에는 신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세를 떨치기도 했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② 신라는 고구려 부흥 운동 세력을 후원하는 한편, 백제 땅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이어 남침해 오던 당의 20만 대군을 매소성에서 격파하여 나·당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고, 금강 하구의 기벌포에서 당의 수군을 섬멸 하였으며, 평양에 있던 안동 도호부도 요동성으로 밀어 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삼국 통일을 이룩하였다(676).

③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는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 기반을 다져, 도움을 철원으로 옮기면서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태봉으로 바꾸고,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였다.

④ 후백제를 세운 견훤은 중국 5대 여러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는 등 국제적 감각도 갖추었다.

8.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그는 우연히 광대가 춤출 때 쓰는 커다란 박을 얻었는데, 이 박을 무애(無碍)라 이름 붙이고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이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들까지도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게 되었다. - 「삼국유사」 -

- ①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 ② 부석사를 창건하여 화엄종의 중심 사찰로 삼았다.
- ③ 정토 신앙을 전파하여 불교 대중화에 노력하였다.
- ④ 유식 불교를 받아들이고 불교 경전의 번역에 힘썼다.
- ⑤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풍물을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정답: ③

* 원효(617~686)에 대하여

원효는 극락에 가고자 하는 아미타 신앙을 자신이 직접 전도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즉 계를 잃어 설총을 낳은 이후로는 속인의 옷으로 바꾸어 입고 자신을 소성거사라 하며 속인 행세를 하고 다녔는데, 광대들이 큰 박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무애가를 지어 부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나무아미타불만 외쳐도 서방정토에 갈 수 있다: 정토 신앙) 일반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또한 원효는 불교 서적을 폭넓게 이해하고,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들과 사상적 대립을 조화 시키고 분파 의식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① 선덕여왕 때 대국통이었던 자장은 주변 9개 민족의 침략을 부처의 힘으로 막기 위하여 황룡사 9층 목탑 건축을 건의했다(643).

② 의상(625~702)은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 사상을 정립하였다. 의상은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화엄 10찰)하여 불교 문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④ 원측(613~696)은 당에서 유식 불교를 연구하였다. 15세에 당나라에 가서 현장의 제자가 되었고, 중국어뿐만 아니라 범어에도 능통하여 많은 불교 경전을 번역하였다.

⑤ 혜초(704~787)는 자신이 돌아본 인도와 중앙 아시아 여러 나라의 풍물을 생생하게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9. 밑줄 그은 '국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해관 박속청이 아뢰되, “동해에 작은 산이 떠서 감은사로 향하여 오는데 물결을 따라 왕래합니다.”라고 하였다. …… 국왕이 배를 타고 그 산에 들어가니, 용이 나타나 “동해의 용이 된 그대의 아버지인 문무왕과 천신(天神)이 된 김유신이 그대에게 옥대와 대나무를 전해 주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국왕이 놀라고 기뻐하여 대나무를 베어서 피리를 만들었다. …… 그 피리를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 하고 나라의 보물로 삼았다.

〈보기〉

ㄱ.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ㄴ.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ㄷ. 국학을 세워 유학 교육을 장려하였다.
 ㄹ.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감은사.만파식적과 신문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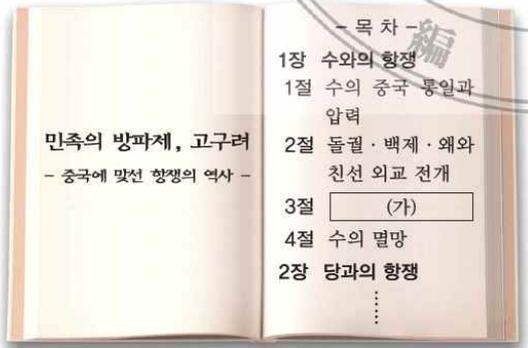
• 신라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위하여 감은사(682)를 짓고 추모하는데, 죽어서 바다 용이 된 문무왕과 하늘의 신이 된 김유신이 합심하여 동해의 한 섬에 대나무를 보냈다. 이 대나무를 베어서 피리를 만들어 부니, 적의 군사는 물러가고, 병은 낮고, 물결은 평온해졌다고 한다(만파식적).

• 신문왕(681~692)은 김흠돌의 모역 사건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고 정치 세력을 다시 편성하였다. 중앙 정치 기구와 군사 조직을 정비하고, 9주 5소경 체제의 지방 행정 조직을 완비하였다. 또,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687)하고, 귀족의 경제 기반이었던 녹읍을 폐지(689)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을 위하여 유학 사상을 강조하고,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682).

㉠ 원성왕 때에는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독서 삼품과를 마련하기도 하였다(788).

㉡ 진흥왕은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576).

10. (가)에 들어갈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을지문덕의 활약과 살수 대첩
- ② 남북조에 대한 등거리 외교 전략
- ③ 방어 체제의 정비와 천리장성 축조
- ④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해전에서의 승리
- ⑤ 고구려인의 항쟁 의지를 보여준 안시성 싸움

정답: ①

* 고·수 전쟁

중국을 다시 통일한 수(589)가 동북쪽으로 세력 확대를 피하자, 고구려에는 위기감이 점차 높아졌다. 이에, 고구려는 북쪽의 돌궐과 남쪽의 백제, 왜와 연결하는 연합 세력을 구축하면서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수를 건국한 문제와 뒤를 이은 양제는 거듭하여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고구려는 요하를 굳게 지켜 문제의 침략을 막아 냈고, 백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 온 양제의 군대를 을지문덕이 크게 격파하여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다(살수 대첩, 612).

결국 수는 무리한 전쟁으로 인한 국력 소모와 내란으로 결국 망하고 말았다(618).

② 장수왕(413~491)은 중국 남북조와 각각 교류하면서, 대립하고 있던 두 세력을 조종하는 외교 정책을 써서 중국을 견제하였다.

③ 수의 뒤를 이은 당도 고구려를 침략할 기회를 엿보았다. 이에, 고구려는 국경에 천리장성(631~647)을 쌓고, 방어 체제를 강화하는 등 당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④ 신라 문무왕 때 당의 20만 대군을 매소성에서 격파하여(675) 나·당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고, 금강 하구의 기벌포에서 당의 수군을 섬멸하였으며, 평양에 있던 안동도호부도 요동성으로 밀어 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삼국 통일을 이룩하였다(676)

⑤ 당 태종은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여 고구려는 국경의 여러성이 함락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안시성을 중심으로 민·군이 협력하여 마침내 당군을 물리쳤다(645).

11.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세조[용건]가 급히 따라 가서 도선(道詵)과 만났는데 …… 도선이 말하기를, “이 땅의 지맥은 북방 백두산 수도 목간(水母木幹)으로부터 내려와서 마두 명당(馬頭名堂)에 떨어졌다. 당신은 또한 수명(水命)이니 마땅히 물의 대수(大數)를 따라서 삼십육 구(區)의 집을 지으면 천지의 대수에 부합하여 다음해에는 반드시 슬기로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에게 왕건이라는 이름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 「고려사」 -

< 보기 >
 가. 삼국 시대 - 이차돈의 순교로 공인되었다.
 나. 신라 말기 - 지방 호족이 성장하는데 기여하였다.
 다. 고려 전기 - 서경 천도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라. 조선 전기 - 도덕 수양을 강조하는 심성론으로 발전하였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정답: ③

* 도선과 풍수지리설

신라 말기에 도선과 같은 선종 승려들은 중국에서 유행한 풍수지리설을 들여왔다. 풍수지리설은 산세와 수세를 살펴 도읍, 주택, 묘지 등을 선정하는 인문 지리적 학설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따라, 경주 중심의 지리 개념에서 벗어나 다른 지방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를 신봉한 왕건 등의 지방 호족이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풍수지리설은 미래의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도참 사상이 더해져 고려 시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고려 초기에는 개경과 서경이 명당이라는 설이 유포되어 서경 천도와 북진 정책 추진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한편, 이러한 길지설은 개경 세력과 서경 세력의 정치적 투쟁에 이용되어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문종을 전후한 시기에는 북진 정책의 퇴조와 함께 새로이 한양 명당설이 대두하여 이 곳을 남경으로 승격시키고 궁궐을 지어 왕이 머무르기도 하였다.

풍수지리설과 도참 사상은 조선 초기 이래로 중요시되어 한양 천도에 반영되었으며, 양반 사대부의 묘지 선정에도 작용하였다

㉠ 신라에서의 불교 공인은 법흥왕 때에 이차돈의 순교를 통해서이다(527).

㉡ 16세기 성리학의 경향은 도덕성과 수신을 중시하였으며, 그것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인간 심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다.

12.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양현고를 두어 필요한 재정을 확충하시오.
- ② 집현전을 세워 학문 연구에 힘쓰도록 하시오.
- ③ 경사 6학을 제정하고 향학을 세우도록 하시오.
- ④ 만권당을 설치하여 원의 학자들과 교류를 확대하시오.
- ⑤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유학 교육을 강화하시오.

정답: ①

* 고려 중기 예종 때의 관학 진흥책

고려 중기에는 최충의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가 융성하였다. 사학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이 과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국자감의 관학 교육은 위축되었다. 이에 정부는 관학 진흥을 위한 여러 시책을 추진하였다.

예종 때에는 국자감을 재정비하여 전문 강좌(7재)를 설치하고, 장학 재단(양현고)을 두어 관학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였고 궁중 안에 청연각, 보문각, 천장각, 임천각 등의 도서관 겸 학문 연구소를 설치하였다.

인종 때에는 경사(經史) 6학 제도를 마련하고, 향교 중심의 지방 교육을 강화하였다.

무신 정권기에는 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충렬왕 때에 국학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공자 사당인 문묘를 새로 건립하여 유교 교육의 진흥에 나섰다. 공민왕은 성균관을 순수한 유교 교육 기관으로 개편하고 유교 교육을 강화하였다.

② 조선 세종은 궁중 안에 정책 연구 기관으로 집현전을 두고 집현전 학사를 일반 관리보다 우대하였다

④ 충선왕은 원에 만권당을 설립(1314)하고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13. 다음 정책이 반포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3점]



국가로부터 과전을 지급 받은 관리는 더 이상 농민에게서 조(租)를 직접 거둘 수 없다. 이제부터는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조를 거둔 후 관리에게 지급할 것이다.

- ① 조세의 금납화가 확산되었다.
- ② 관리들의 수조권 남용이 심하였다.
- ③ 불법적인 대립과 방군수포가 성행하였다.
- ④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농장을 확대하였다.
- ⑤ 도조법으로 소작료를 납부하는 농민이 늘어났다.

조선 초 과전법 하에서 수조권을 받은 자는 스스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과전법의 경우에는 10분의 1을 농민에게 세금으로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수조권을 가진 양반 관료가 이를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잦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종 때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관수관급제). 이에 양반 관료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는 방식은 사라지고,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① 조선 후기에 정부는 화폐의 유통에 힘썼고 18세기 후반부터는 세금과 소작료도 동전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하여 조세의 금납화가 더욱 촉진되었다

③ 장기간 평화가 지속되면서 16세기 들어 관청이나 군대에서 군역에 복무해야 할 사람에게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해 주는 방군수포와 다른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대립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다. 이에 군포징수제가 점차 확산되어 갔다.

④ 고려 말 권세족의 불법적 농장 확대는 농민의 몰락과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토대를 위협하여, 급진 개혁파(혁명파) 사대부 세력은 우왕과 창왕을 잇따라 폐하고 공양왕을 세운 후, 전제 개혁을 단행하여 과전법을 마련하였다(1391).

⑤ 조선 후기에 소작 농민은 좀더 유리한耕作 조건을 얻어 내기 위하여 지주에게 대항하여 소작 쟁의를 벌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작권을 인정받아 지주가 함부로 소작지를 빼앗지 못하고, 수확량의 반을 내던 소작료도 일정 액수를 곡물이나 화폐로 내도록 하는 변화가 나타났다.(도조법)

정답: ②

* 관수관급제 제정(1470)의 배경

14.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그는 명종 4년(1174)에 천태종 승려로 입문하였으며, 다음 해 승과에 합격하였다. 수행하던 중에 개경의 천태종 사찰인 고봉사의 법회에 참석하였으나, 그 분위기에 크게 실망하여 신앙 결사에 뜻을 두게 되었다. 그는 한때 수선사 결사에 참여하여 선(禪) 수행법을 익히기도 하였으나, 수행상의 제약을 극복하려면 결국 천태의 교리에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후 그는 강진 만덕사에서 백련 결사를 결성하였다.

- ① 국청사를 창건하고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 ② 화엄 사상을 정비하고 보살의 실천행을 펼쳤다.
- ③ 자신의 행동을 참회하는 법화 신앙을 강조하였다.
- ④ 정혜쌍수와 돈오점수의 수행 방법을 확립하였다.
- ⑤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며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정답: ③

* 백련 결사를 창시한 요세

지눌과 비슷한 시기에 요세는 백성의 신앙적 욕구를 고려하여 강진 만덕사(백련사)에서 백련 결사를 제창하였다.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법화 신앙에 중점을 둔 백련 결사 역시 지방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고, 수선사와 양립하며 고려 후기 불교계를 이끌었다.

① 11세기에 이미 종파적 분열상을 보인 고려 불교계에 문종의 왕자로서 승려가 된 의천은 교단 통합 운동을 펼쳤다. 그는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으며, 또 선종을 통합하기 위하여 국청사를 창건하여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이를 뒷받침할 사상적 바탕으로 의천은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창하였다.

② 고려 초기에는 화엄 사상을 정비하고 보살의 실천행을 펴던 균여의 화엄종이 성행하였고, 선종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④ 지눌은 선과 교학이 근본에 있어 둘이 아니라는 사상 체계인 정혜쌍수와 내가 곧 부처라는 깨달음을 위한 노력과 함께, 꾸준한 수행으로 깨달음의 확인을 아울러 강조한 돈오점수를 주장하며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였다.

⑤ 지눌의 수선사 결사 운동은 지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그의 제자인 혜심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하며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여 장차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15.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태조 18년(935)에 신라왕 김부가 와서 항복하므로, 신라를 경주로 삼았다. 그리고 김부를 경주의 (가) (으)로 임명하여 부호장 이하 관직에 관한 일들을 주관하게 하였다.

- ① 양계의 주진군을 지휘하였다.
- ② 향촌의 말단 실무 행정을 담당하였다.
- ③ 민심을 수습하고 지방 세력을 통제하였다.
- ④ 매향 활동을 하면서 사원 건립을 주도하였다.
- ⑤ 5도에 파견되어 도내의 여러 지역을 순찰하였다.

정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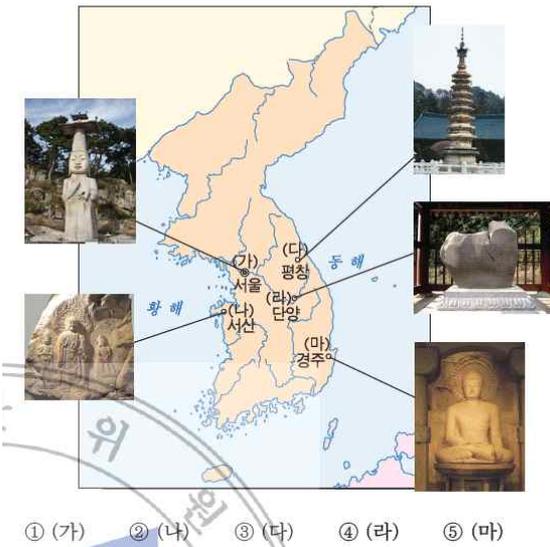
* 고려의 호족 통합 제도 사심관 제도

사심관이란 향리 부호장 이하의 관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케 한 제도로서, 신라 경순왕을 시작으로 다른 공신들도 각각 그 출신지의 사심관으로 삼게 되면서부터 사심관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태조가 이 제도를 시행한 목적은 민심을 수습하고 호족세력을 무마·통제하기 위해서였다. 당시에 중앙의 통치력이 지방에까지 침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개경에 거주하는 호족들로 하여금 출신지역을 관장케 하는 간접적인 지방통제를 꾀하게 되었던 것이다.

- ① 양계의 주진군의 총 지휘관은 병마사이다
- ② 향촌의 조세나 공물의 징수와 노역 징발 등 실제적인 행정 사무는 향리가 담당하였다.
- ④ 농민들로 구성된 향도는 매향 활동을 하면서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불상, 석탑을 만들거나 절을 지을 때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 ⑤ 5도는 상설 행정 기관이 없는 일반 지방 행정 단위로서, 안찰사가 파견되어 도내의 지방을 순찰하였다.

16. (가)~(마) 지역을 답사할 때 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정답: ①

* 각 지역별 문화 유산

(가)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은진 미륵): 고려 초기에는 광주 춘궁리 철불 같은 대형 철불이 많이 조성되었다.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나 안동 이천동 석불처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지역 특색이 잘 드러난 거대한 불상도 조성되었다.

(나) **서산 마애 삼존불**: 백제의 서산 마애 삼존불, 신라의 경주 배리 석불 입상은 미소를 머금은듯한 당시 불상 조각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다) **평창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다각다층탑이 고려 전기에 유행하는데 그 전형을 보여 준다. 즉 당시 송나라의 선진문물이 수용되며 송나라에서 유행하던 8각탑이 수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라) **단양 적성비**: 적성 점령에 대한 포상과 그 지역에 대한 대민회유 무마책의 내용이다. 신라가 진흥왕 때에 한강 상류까지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

(마) **경주 석굴암 본존불**: 석굴암 주실의 중앙에 있는 본존불은 균형잡힌 모습과 사실적인 조각으로 살아 움직이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17. 밑줄 그은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의 연보

- 1277년(충렬왕 3) 개성에서 출생
- 1301년(충렬왕 27) ㉠과거에 급제
- 1342년(충혜왕 복위 3) ㉡역용패설을 저술
- 1353년(공민왕 2) 부원군으로 ㉢지공거에 임명됨.
- 1356년(공민왕 5) ㉣문하시중에 제수됨.
- 1357년(공민왕 6) 국사와 금경록 편찬에 참여
- 1367년(공민왕 16) 사망

— < 보기 > —

ㄱ. ㉠ - 조상의 음덕으로 관직에 진출하는 방법이었다.
 ㄴ. ㉡ - 일종의 수필 형식인 패관 문학 작품이다.
 ㄷ. ㉢ - 과거를 주관하여 급제자를 선발하였다.
 ㄹ. ㉣ - 교정도감의 장관으로 국정을 총괄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이제현과 관련 고려 제도

㉠ 고려의 관리는 과거와 음서를 통하여 등용되었다.

과거는 제술업, 명경업, 잡업으로 나뉜다. 제술업은 문학적 재능과 정책 등을 시험하고, 명경업은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하여 문신을 뽑았다. 잡업은 법률, 회계, 지리 등 실용 기술학을 시험하여 기술관을 뽑았다.

공신과 종실의 자손,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손 등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관료가 될 수 있는 음서의 혜택을 받아 관료로서의 지위를 세습하기도 하였다.

㉡ 고려 후기에는 수필 형식의 패관문학이 유행하였다. 파한집(이인로), 보한집(최자), 백운소설(이규보), 역용패설(이제현)이 대표적이다

㉢ 고려의 과거 제도는 시험관인 지공거(좌주: 예부시 시관)와 그의 주관 하의 급제생인 문생 간에는 끈끈한 관계가 있었다. 즉 문생이 좌주를 대할 때에는 마치 아버지(좌주)와 아들(문생)의 관계의 예를 차렸다.

㉣ 고려는 최고 관서로서 중서문하성을 두었고, 그 장관인 문하시중(종1품)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 최씨 무신 집권기의 최고 권력기관인 교정도감의 장관은 교정별감(초대: 최충헌)이다.

18.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은(는) 관리들의 행동을 감찰하여 그들의 죄과를 논박하고 따지는 임무를 맡았다. 고려 초기에는 사헌대라고 하였는데, 성종 14년에 명칭을 고쳤다. 그 관원들은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 ① 문관의 인사와 공훈을 관장하였다.
- ②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의 일을 맡았다.
- ③ 대내적인 법제와 격식의 문제를 다루었다.
- ④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풍속을 교정하였다.
- ⑤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를 처리하였다.

정답: ④

* 고려의 언론·감찰 기관 어사대

어사대는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교정하는 임무를 맡았다. 어사대의 관원은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대간은 비록 직위는 낮았지만(장관 어사대부 정3품: 재신이 아님), 왕이나 고위 관리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하여 정치운영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다.

① 정책 집행 기관인 상서성 산하 6부 중 이부는 문관의 인사(문선), 공훈(훈봉)을 담당하였다.

② 중추원은 군사 기밀을 담당하면서 재신(중서문하성의 2품 이상 관료)과 함께 국정을 총괄하는 추밀(2품 이상 관료)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승선(3품 이하)으로 구성되었다.

③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 주는 관청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재신과 추밀이 함께 모여 회의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곳인데, 식목도감은 임시 기구로서 국내 정치에 관한 법의 제정이나 각종 시행 규정을 다루던 회의 기구였다.

⑤ 고려의 삼사는 송과는 달리, 단순히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만 맡았다.

19. 그림의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 ② 북방 개척을 통해 4군 6진을 설치하였다.
- ③ 청을 정벌하기 위해 북벌 운동을 추진하였다.
- ④ 호를 기준으로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법을 실시하였다.
- ⑤ 통치 규범을 재정리하기 위해 대전회통을 편찬하였다.

정답: ①

* 화성 행차와 정조의 업적

궁극적으로 봉당을 없애고자 했던 정조(1776~1800)는 각 봉당의 입장을 떠나 의리와 명분에 합치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중용하여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또한 규장각을 봉당의 비대화를 막고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 기구로 육성하였다. 아울러 스스로 초월적 군주로 군림하면서 스승의 입장에서 신하들을 양성하고 재교육시키려 하였다. 특히,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을 재교육시키는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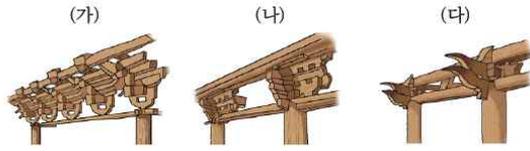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각 군영의 독립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병권을 장악함으로써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 더 나아가 수원으로 사도 세자의 묘를 옮기고, 화성을 세워 정치적 군사적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상공인을 유치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상징적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화성 행차 시 일반 백성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이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였다.

② 세종 때에는 4군과 6진을 설치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③ 효종은 청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던 송시열, 송준길, 이완 등을 높이 등용하여 군대를 양성하고 성곽을 수리하는 등 북벌을 준비하였다.

④ 흥선대원군 집권기(1863~1873) 종래 상민에게만 거둬들이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는 동포(혹은 호포)로 바꾸었고 <대전회통>과 <육전조례> 등을 편찬하여 통치 규범을 재정비하였다.

20. (가)~(다) 공포 양식에 대한 학생들의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보 기 >
 갑 : (가)는 조선 전기 건축에 널리 사용되었어.
 을 : (나)의 대표적 건축물로는 봉정사 극락전이 있지.
 병 : (다)는 성불사 응진전 건축에 적용되었지.
 정 : (가) - (나) - (다)의 순서로 등장하였어.

-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정답: ①

* 역대 공포(栱包) 양식

공포란 전통 목조건축에서 처마 끝의 하중을 받치기 위해 기둥머리 같은 데 짜맞추어 댄 나무 부재로, 장식의 기능도 겸하였다. 그 형식에 따라 주심포식, 다포식, 익공식으로 나뉘어진다.

(가) 다포식: 건물 공포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짜여져 있는 건물로서 웅장한 지붕이나 건물을 화려하게 꾸밀 때에 쓰였다. 고려 후기에는 다포식 건물이 등장하여 조선 전기 건축에 널리 사용되었다. 황해도 사리원의 성불사 응진전은 고려 시대 다포식 건물로 유명하다.

(나) 주심포식: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전달하면서 건물을 치장하는 장치인 공포가 기둥 위에만 짜여져 있는 건축 양식으로서 고려 전기에 유행하여 13세기 이후에 지은 일부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가장 오래 된 건물로 알려져 있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균형잡힌 외관과 잘 짜여진 각 부분의 치밀한 배치로 고려 시대 건축의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다) 익공식: 보통 기둥머리와 주두를 동시에 익공(새날개 모양)이 물고 있는 짜임수법이며, 원칙적으로 출목(出目)이 없다. 익공식은 구조가 간결하여 가구가 견실하고 경제적이어서 조선 중기 이후 흔히 사용하였는데, 중요 정전(正殿)·영녕전(永寧殿)·경복궁 경회루·창덕궁 주합루 등, 특히 누정건물에서 많이 볼 수 있다

21. 밑줄 그은 '이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지난 ○○일, 이 전쟁 때 충주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싸우다 순절한 신립 장군과 8천여 장졸들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열렸다. 이와 함께 이 전쟁 발발 420주년을 맞아 한·중·일 삼국의 역사가자가 참석하는 국제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삼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를 통해 발전적인 미래의 국제 관계를 모색하였다.
- △△신문, 2012년 ○○월 ○○일 -

- ① 북학론의 형성 과정을 살펴본다.
- ② 비변사 폐지의 계기를 파악한다.
- ③ 사화의 영향에 대하여 알아본다.
- ④ 훈련도감의 설치 배경을 조사한다.
- ⑤ 쓰시마 섬 정벌의 결과를 분석한다.

정답: ④

* 임진왜란(1592~1598)

일본은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한 뒤 철저한 준비 끝에 20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략해 왔다(1592). 전쟁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조선은 전쟁 초기에 왜군을 효과적으로 막아 낼 수 없게 되자(이일·신립 패배), 선조는 의주로 피난하여 명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육전에서와 달리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은 곳곳에서 왜군에 큰 타격을 입혔다(옥포, 사천, 당포, 한산도 등).

이순신과 수군의 활약으로 제해권을 장악하여,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전라도 곡창지대와 황해안을 지킬 수 있었다.

수군이 해전에서 승리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향토를 방어하고 조국을 구하려고 하였다. 향토 지리에 익숙한 의병은 그에 알맞은 전술과 전략을 개발하여 적은 병력으로도 적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의병장: 곽재우, 조헌, 고경명,

정문부, 유정(사명대사) 등).

수군이 승리를 거두고 의병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무렵, 명의 원군까지 도착하여 조선은 왜군에 반격을 가하게 되었다. 이 때 김시민은 진주에서, 권율은 행주 산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에, 경상도 해안 지방으로 밀려났던 왜군은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휴전을 제의하였다. 조선도 전열을 정비하여 왜군의 완전 추출을 준비하였다. 훈련도감을 설치(1594)하여 군대의 편제와 훈련 방법을 바꾸었고, 속오법을 실시하여 지방군 편제도 개편하였으며, 화포를 개량하고 조총도 제작하여 무기의 약점을 보완하였다.

3년여에 걸친 명과 일본 사이의 휴전 회담이 결렬되자, 왜군이 다시 침입해 왔다(1597). 이를 정유재란이라 한다. 그러나 조·명 연합군이 왜군을 직산에서 격퇴하고 이순신이 적선을 명량에서 대파하자, 왜군은 남해안 일대로 다시 후퇴하였다. 전세가 불리해진 왜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본국으로 철수하였고, 이를 추격하는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장렬히 전사하며 왜군을 섬멸하여 전란은 끝났다(1598.11.19.)

- ① 북벌론, 북학론은 청과 관련이 있다.
- ② 비변사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구성원이 3정승을 비롯한 고위 관원으로 확대되었고, 군사 문제뿐 아니라 외교, 재정, 사회, 인사 문제 등 거의 모든 정무를 총괄하였다.
- ③ 사화가 아닌 붕당 정치가 국론 분열을 야기하여 왜란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 ④ 조선 초 세종 때에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토벌하였다(1419, 이종무)

22. (가), (나)를 주장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가) - 인조반정을 계기로 정국을 주도하였다.
- ② (가) - 서경덕과 조식의 사상을 학문적 기반으로 삼았다.
- ③ (나) - 경신환국을 통해 정권을 독점하였다.
- ④ (나) - 광해군의 중립 외교 노선을 지지하였다.
- ⑤ (가), (나) -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대해 호락 논쟁을 벌였다.

정답: ①

* (가)서인과 (나)남인의 예송 논쟁

광해군 때 서인과 남인 등을 배제한 채 정권을 독점하려 한 복인은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에 의해 몰락하였다(1623). 서인은 남인 일부와 연합하여 정국을 운영해 나갔으며 인조에서 현종 때까지는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과 연합하여 공존하는 구도가 유지된 채 붕당 정치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현종 때에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예송이 발생하면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었다.

• 기해 예송(1660): 효종 상에 대한 인조 계비인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 서인(신권 강조) 승리

• 갑인 예송(1674): 효종 비(인선왕후)의 상에 대한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 남인(왕권 강조) 승리.

② 선조 때에 서경덕 학파와 이항 학파, 조식 학파가 동인을 형성하였으며, 이이 학파와 성혼 학파가 서인을 형성하였다

③ 숙종 때에 이르러 정국을 주도하는 붕당과 견제하는 붕당이 서로 교체됨으로써 정국이 급격하게 전환하는 환국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경신환국(1680)에서는 서인 승리, 기사환국에서는 남인 승리(1689), 갑술환국에서는 다시 서인이 승리하였다.

④ 광해군 때 집권 세력인 복인은 중립 외교를 취하는 등 성리학적 의리 명분론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다.

⑤ 18세기에 이이 학파를 계승한 노론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호락 논쟁을 벌였다.

23. 다음은 어느 역사서의 서문이다. 이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신(臣) 정인지 등은 삼가 아뢰옵니다. …… “대개 지난 시기의 흥망은 앞날의 교훈이 되기에 이 역사책을 편찬하여 올리는 바입니다. …… 이 책을 편찬하면서 별래는 사마천의 「사기」를 따랐고, 기본 방향은 직접 왕께 여주어서 결정했습니다. 본기(本紀)라고 하지 않고 세가(世家)라고 한 것은 대의 명분의 중요함을 보인 것입니다. 신우(우왕), 신창(창왕)을 세가에 넣지 않고 열전으로 내려놓은 것은 왕위를 도적질한 사실을 엄히 밝히려 한 것입니다.”

- ①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를 수록하였다.
- ② 실록청에서 사초와 시정기 등을 종합하여 편찬하였다.
- ③ 고구려 건국 영웅의 업적을 서사시 형태로 저술하였다.
- ④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는 입장에서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 ⑤ 고조선으로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정리하였다.

정답: ④

* 기전체 역사서 고려사

고려 시대의 역사를 자주적 입장에서 재정리하는 작업은 계속되어 15세기 중엽에 기전체의 고려사(1451, 정인지)와 편년체의 고려사절요(1452, 김종서)가 완성되었다

고려사: 조선 초기 1392년부터 1451년까지 59년 동안 조선 태조, 태종, 세종, 문종에 이르기까지 만들고 수정한 고려 시대에 대한 역사서로서, 기전체(紀傳體)로 된 고려 왕조의 정사이다. 32명의 왕이 다스린 475년 동안의 각종 사건과 인물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단순한 기록이라기보다는 후세에 지침이 될 만한 정치적 근거로서 조선을 건국한 주도 세력인 사대부들의 역사관을 담고 있다. 고려 왕의 기록에 관해 본기(本紀: 황제의 역사)를 두지 않고 세가(世家: 제후들의 역사)를 두고 있다.

① 충렬왕 때에 일연이 쓴 삼국유사(1285)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겨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② 조선 시대에는 실록의 편찬을 매우 중요시하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실록은 한 국왕이 죽으면 다음 국왕 때 춘추관을 중심으로 실록청을 설치하고 사관이 국왕 앞에서 기록한 사초, 각 관청의 문서를 모아 만든 시정기 등을 종합, 정리하여 실록을 편년체로 편찬하였다.

③ 고려 후기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 건국의 영웅인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일종의 영웅 서사시로서, 고구려의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⑤ 우리 나라의 전체 역사를 편찬하려는 노력도 계속되어 성종 때에 동국통감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편년체 통사로서, 서거정 등이 편찬하였다(1485).

24. 다음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천자(天子)는 어찌하여 존재하게 되었는가? 비가 내리듯 하늘에서 내려와 천자가 되었는가? 아니면 샘이 땅에서 솟아나듯 천자가 되었는가? …… 여러 현장(縣長)들이 공동으로 추대한 사람이 제후가 되고, 제후들이 공동으로 추대한 사람이 천자가 된다. 따라서 천자란 여러 사람들의 추대에 의해 세워진 것이다.
- 탕론 -

- ① 청으로부터 시헌력을 도입하였다.
- ② 우리말을 연구하여 훈민정음운해를 저술하였다.
- ③ 지전설을 처음 주장하여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 ④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로 확대한 동사를 편찬하였다.
- ⑤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를 정리한 아방강역고를 저술하였다.

정답: ⑤

* 정약용에 대하여

• 제시 자료 탕론은 정약용의 대표적 저서 1표(경세유표) 2서(목민심서·흠흠신서), 3론(원목·탕론·전론) 중 하나로서 민본적 역성혁명을 옹호하고 있다.

• 이익의 실학 사상을 계승하면서 실학을 집대성한 최대의 학자는 정약용으로, 지방 행정의 개혁에 대하여 쓴 목민심서, 중앙 행정의 개혁에 대하여 쓴 경세유표 등을 비롯하여 500여 권의 저술을 남겼다.

<정약용 저서 목록>

마과회통(1794): 제녀의 종두법 소개.

아방강역고(1811): 역사지리서. 백제의 도읍지가 서울, 발해의 중심지가 백두산 동쪽이라는 것을 고증.

민보의(1812): 국토방위 책략서

대동수경(1814): 북계 중심의 산수 고증서.

경세유표(1817), 목민심서(1818)

흠흠신서(1819): 형법서

아언각비(1819): 속어와 속자를 고증

① 김육 등의 노력으로 청으로부터 서양 역법인 시헌력이 도입되었다.

② 조선 후기에 한글 연구서로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와 유희의 언문지 등이 나왔다.

③ 홍대용은 과학 연구에 힘써 김석문과 함께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지전설은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④ 이종휘는 동사에서 고구려 역사 연구를 통하여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 지방까지 확대시킴으로써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는 데 힘썼다.

25.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신분 해방을 주된 목표로 내세웠다.
- ② 동학 사상을 바탕으로 봉기하였다.
- ③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④ 중앙 관서의 공노비를 해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⑤ 몰락 양반, 영세 농민, 광산 노동자 등이 참여하였다.

정답: ⑤

* 홍경래의 난(1811)

세도정치하 최초의 대규모 농민봉기인 홍경래의 난은 몰락한 양반인 홍경래의 지휘하에 영세 농민, 중소 상인, 광산 노동자 등이 합세하여 일으킨 봉기였다. 이들은 처음 가산에서 난을 일으켜 선천, 정주 등을 별다른 저항없이 점거하였다. 한때는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하였으나 5 개월 만에 평정되었다.

① 농민들이 지배층의 압제에 대하여 종래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과 대결한 것이지 신분해방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다.

② 동학농민운동(1894)

③ 단성에서 시작되고 곧이어 진주로 파급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농민 항쟁인 임술 농민 봉기(1862)가 발생하자 정부는 암행어사, 안핵사 등을 파견하여 백성들의 실상을 파악하고,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여 삼정의 문란을 시정한다고 약속하였으나 정부로서는 세도정치를 극복하여 조세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였다.

④ 18세기 후반, 공노비의 노비안이 도망과 합법적인 신분 상승으로 이름만 있을 뿐 신공을 받아 낼 수 없게 되자, 순조 때에 중앙 관서의 노비 6만 6000여 명을 해방시키기도 하였다(1801).

26.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세상의 도리가 무너져 돈 있고 힘 있는 백성들이 균역을 피하고자 간사한 아전과 한통속이 되어 뇌물을 쓰고 호적을 위조하여 유학(幼學)이라고 거짓으로 올리고 면역을 하거나 다른 고을로 옮겨가서 스스로 양반 행세를 한다. 호적이 밝지 못하고 명분의 문란함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다. - 「일성록」 -

- ① 문중의 족보를 정리하는 사족
- ② 서당에서 글을 읽고 있는 평민 자제
- ③ 포구에서 물건의 매매를 중개하는 객주
- ④ 시사(詩社)에서 자작시를 낭송하는 중인
- ⑤ 과중한 공물 부담에 힘들어하는 소(所)의 주민

정답: ⑤

* 양반의 향촌 지배가 약화된 조선 후기 사회상

조선 후기 경제의 변동과 신분제의 동요 속에서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도 변화하였다. 평민과 천민중에 재산을 모아 부농층으로 등장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양반 중에는 토지를 잃고 몰락하여 전호가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임노동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향촌 사회 내부에서 양반이 지녔던 권위도 점차 약해졌다.

양반은 균현을 단위로 농민을 지배하기 어렵게 되자, 촌락 단위의 동약을 실시하거나 족적 결합을 강화함으로써 자기들의 지위를 지켜 나가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문중 족보 정리에 힘쓰고, 전국에 많은 동족 마을이 만들어지고,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 사우가 많이 세워졌다.

향촌 사회에서 종래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양반은 새로 성장한 부농층의 도전을 받았다. 경제력을 갖춘 부농층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관권과 결탁하여 향안에 이름을 올리려는가 하면, 향회를 장악하여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려 하였다. 부농층은 종래의 재지 사족이 담당하던 정부의 부세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향임직에 진출하거나 기존 향촌 세력과 타협하면서 상당한 지위를 확보하여 갔다. 그러나 향촌 지배에 참여하지 못한 부농층도 여전히 많았다.

② 조선 후기에는 평민의 서당 교육이 보급되고, 서민의 경제적·신분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서민 문화가 대두하였다

③ 조선 후기에 들어 포구가 새로운 상업 중심지가 되었으며 포구를 거점으로 선상, 객주, 여각 등이 활발한 상행위를 하였다.

④ 조선 후기에 중인층과 서민층의 문학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동호인들이 모여 시사를 조직하였다

⑤ 고려 시대에 양민이면서 균현민과 구별되는 특수 행정 구역인 향, 부곡, 소에 거주한 주민은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

27. 밑줄 그은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현물로 바칠 꼴 한 말의 값은 묵면 3필이지만, 방납 모리배들은 4필을 걷고 있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면 대호(大戶)가 원망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소민(小民)이 원망한다는데, 소민의 원망이 더 큼니다. 경기와 강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속히 충청과 호남에도 시행하소서.
- 「효종실록」 -

- ① 농민에게 1년에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다.
- ② 토산물 대신에 토지 1결당 미곡 12두를 거두었다.
- ③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하여 징수하였다.
- ④ 지주에게 결작으로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켰다.
- ⑤ 요역에 동원할 수 있는 날을 연중 6일 이내로 제한하였다.

정답: ②

* 공납의 전세화 대동법

임진왜란을 겪으며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결국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이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대동법은 농민 집집마다에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였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면적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 대동법의 실시로 과세의 기준은 종전의 가호에서 토지의 결수로 바뀌었다(공납의 전세화). 따라서 농민들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을 납부하면 되었다. 이 때문에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과중하게 부과되었던 공물 부담은 없어지거나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

①, ④ 조선 후기에 균역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마침내 균역법이 시행되었다(1750). 이로부터 농민은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③ 조선 후기에는 연분 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 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이를 영정법이라 한다(1635).

⑤ 조선 시대의 요역은 성종 때에는 경작하는 토지 8결을 기준으로 한 사람씩 동원하고, 1년 중에 동원할 수 있는 날도 6일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을 바꾸었으나, 임의로 징발하는 경우도 많았다.

28.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옳은 것은?

[1점]

○○ 미술관 개관 50주년
기념 특별전

진경산수대전

<특별 공개>

(가)

- 영조 27년(1751) 정선이 그린 그림이다.
- 바위산은 선으로, 흙산은 묵으로 묘사하여 우리나라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정답: ③

* 조선 후기 정선의 진경산수화

17세기부터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고, 이런 의식은 우리의 고유 정서와 자연을 표현하려는 예술 운동으로 나타났다. 진경 산수화는 중국 남종과 북종 화법을 고루 수용하여 우리의 고유한 자연과 풍속에 맞춘 새로운 화법으로 창안한 것이었다.

진경 산수화를 개척한 화가는 18 세기에 활약한 정선이였다. 그는 서울 근교와 강원도의 명승지를 두루 답사하여 그것들을 사실적으로 그려 냈다. 정선은 대표작인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에서 바위산은 선으로 묘사하고, 흙산은 묵으로 묘사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산수화의 새로운 경지를 이룩하였다.

① **세한도**: 조선 후기의 서화가 김정희의 문인화로서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 북경에서 귀한 책을 구해다 준 제자 이상적의 인품을 송백(松柏)의 지조에 비유하며 그 답례로 그려준 그림이다.

② **몽유도원도**: 조선 전기 화원 출신인 안견은 역대 화가들의 기법을 체득하여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 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몽유도원도는 자연스러운 현실 세계와 환상적인 이상 세계를 능숙하게 처리하고 대각선적인 운동감을 활용하여 구현한 걸작이다.

③ **인왕제색도**

④ **영통동구도**: 강세황, 원근법 적용

⑤ **십장생도**: 작자 미상. 화원 출신 화가가 그렸을 것으로 추정

29. 다음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좌의정 채제공이 왕께 아뢰기를, “평시서로 하여금 30년 이내에 신설된 시전을 모두 헐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형조와 한성부에 명하여 옥의전 이외에는 금난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상인들은 자유롭게 매매하는 이익이 있을 것이고 백성들은 생활이 궁핍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모두 그의 말이 옳다고 하였다.

- ① 건원중보가 주조되어 사용되었다.
- ② 인삼, 면화 등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 ③ 일부 농민이 광작을 통해 부농으로 성장하였다.
- ④ 덕대가 물주에게 자금을 조달받아 광산을 운영하였다.
- ⑤ 모내기법의 확대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성행하였다.

정답: ①

* 신해통공과 조선 후기 경제상

1791년(정조 15) 옥의전 이외의 시전에 대한 전매 특권을 폐지하고 각종 상품에 대한 사상인(私商人)의 자유로운 매매를 인정한 상업정책.

이로 인하여 소상공층 및 소생산자층의 자유로운 상행위를 보장되었다(私商의 발달).

① 고려 시대에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화폐가 발행되었다. 성종 때에는 철전인 건원중보를 만들었다.

② 조선 후기에 장시가 점차 증가하여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농민은 쌀, 목화, 채소, 담배, 약초 등을 재배하여 팔았다.

③, ⑤ 조선 후기에 모내기법이 확대되어 농민들은 벼와 보리의 이모작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켜 소득을 증대하였다. 또한 모내기법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일손을 덜 수 있게 되자, 농민은 경작지의 규모를 확대하였다(광작). 지주들도 직접 경작하는 토지를 넓혔지만, 자작농은 물론 일부 소작농도 더 많은 농토를 경작하여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다. 이전보다 넓은 농토를 경작할 수 있게 된 광작 농업으로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 부농이 될 수 있었다.

④ 조선 후기의 광산 경영은 경영 전문가인 덕대가 대개 상인 물주에게 자금을 조달받아 채굴업자와 채굴 노동자, 제련 노동자 등을 고용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제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30. 밑줄 그은 '우리' 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
 절한 것은? [3점]

우리는 본래 모두 사대부였는데 혹은 의(醫)에 들어가
 고 또는 역(譯)에 들어가 7, 8대 또는 10여 대를 대대로
 세습하니 사람들이 중촌고족(中村古族)이라 일컫게 되었
 다. …… 우리와 서얼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나라의 편벽
 된 일로 이제 몇백 년이 되었다. …… 이제 바야흐로 의논
 을 모아 글을 써서 원통함을 호소하고자 먼저 통문을 띄
 우노니 이달 29일 마동에 있는 홍현보의 집에 모여 상의
 코자 한다. - 「상원과방」 -

- ① 종모법이 적용된 신분을 찾아본다.
- ② 청금록에 수록된 인물들을 조사한다.
- ③ 형평 운동이 전개된 배경을 알아본다.
- ④ 대규모 소청 운동을 전개한 신분을 찾아본다.
- ⑤ 양인 중에서 천역을 담당한 계층을 살펴본다.

정답: ④

* 좁은 의미의 중인 계층(기술직)

중인은,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 계층을 뜻하고, 좁은 의미로는 기술관
 만을 의미한다(의.역.율.산). 중앙과 지방에
 있는 관청의 서리와 향리 및 기술관은 직역
 을 세습하고, 같은 신분 안에서 혼인하였으
 며, 관청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였다.

중인은 양반에게서 멸시와 하대를 받았으나,
 대개 전문 기술이나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으
 므로 나름대로 행세할 수 있었다. 예를 들
 어, 역관은 사신을 수행하면서 무역에 관여
 하여 이득을 보았으며, 향리는 토착 세력으
 로서 수령을 보좌하면서 위세를 부리기도 하
 였다.

조선 후기 영.정조 대의 서얼의 신분 상승
 운동은 기술직 중인에게도 자극을 주어 19
 세기 순조.철종 때에 통청(소청) 운동을 전개
 하였으나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① 조선 후기 노비의 신분 상승 추세는 아버
 지가 노비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양민이면 양
 민으로 삼는 법이 실시되면서 더욱 촉진되었
 다(노비종모법, 1733)

② 청금록은 조선 시대의 성균관·향교·서원
 등에 있던 유생들의 명부로서 유안(儒案)이
 라고도 불리운다.

③ 1920년대에 백정 출신들은 경상 남도 진
 주에서 형평사를 창립하고(1923), 평등한 대
 우를 요구하는 형평 운동을 펼쳐 나갔다

④ 양인 중에도 천역을 담당하는 계층이 있
 었는데, 이들을 신량역천이라 하였다. 수군,
 조례(관청의 잡역 담당), 나장(형사 업무 담
 당), 일수(지방 고을 잡역), 봉수군(봉수 업
 무), 역졸(역에 근무), 조졸(조운 업무).

31. 다음 개혁안이 제시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1. 잠허간 흥선 대원군을 곧 돌아오도록 하고 청에 대하여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2.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권을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12.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한다.

< 보기 >

- ㄱ. 급진 개화파가 주도하였다.
- ㄴ. 한성 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 ㄷ. 구분신참을 개혁의 원칙으로 표방하였다.
- ㄹ.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 최초의 근대화 운동 갑신정변(1884)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는 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과 경제 침략을 강화하였다. 이에 반발한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적 개화 세력은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갑신정변을 일으켰다(1884).

이들은 청과의 의례적 사대 관계를 폐지하고, 입헌 군주제(헌법에 의해 국왕의 권력을 제한)적 정치 구조를 지향하면서, 인민 평등권과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주장하였다. 또, 지조법을 실시하고,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하였으며, 해상공국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상업의 발전을 꾀하였다.

하지만, 개화파 정권은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는 갑신정변 추진 세력의 정치·군사적 기반이 약했고, 민중의 지지 속에 정변을 성공시키기보다는 외세에 의존하는 방법을 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근대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후속 조치>

- **한성 조약(조-일):** 일본에 배상금 지불, 공사관 신축비용 부담
- **텐진 조약(청-일):** 양국군 공동 철병, 군대 파병할 때는 사전 통보(일본의 대등한 파병권 획득)

㉠ 대한 제국은 구분신참(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조)의 원칙 아래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광무개혁: 1897~1904)

㉡ 임오군란(1882) 때에 일본은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여 배상금을 받아내고 일본 경비병을 주둔시켰다.

32. 다음 활동을 전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1920년 : 박재혁, 부산 경찰서에 폭탄 투척
- 1921년 : 김익상, 조선 총독부에 폭탄 투척
- 1923년 : 김상옥, 종로 경찰서에 폭탄 투척
- 1926년 : 나석주, 동양 척식 주식 회사에 폭탄 투척

< 보 기 >

- ㄱ.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였다.
- ㄴ. 만주에서 김원봉의 주도로 조직되었다.
- ㄷ. 미군의 지원을 받아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 ㄹ.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 의열단

3·1 운동 이후 김원봉 등은 일제의 지배에 맞서 싸울 강력한 조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만주에서 의열단을 결성하였다(1919).

의열단은 조선 총독부 고관, 매국노, 친일파 등의 처단과 조선 총독부, 동양 척식 주식회사, 각 경찰서 등 식민 통치 기관의 파괴를 목표로 활동하였다. 단원들은 신채호가 쓴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1925년부터 의열단은 방향 전환을 모색하였다. 암살이나 파괴만으로는 민족 해방 운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여겨, 대원을 황푸군관 학교에 입교시키고, 조선혁명 학교를 설립하여 간부를 양성하였다(1932).

㉠, ㉡ 임시 정부가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한 후 한국 광복군은 연합군과 공동으로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참전하였다. 또, 미국과 협조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으나, 일제의 패망으로 실현하지 못하였다.

33. 다음 주장이 제기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2점]

미국은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돌연히 타인의 권유로 불러들였다가 그들이 우리의 허점을 보고 어려운 요구를 강요하면 장차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는 싫어하고 미워할 처지에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러시아, 미국, 일본은 같은 오랑개입니다. 그들 사이에 누구는 후하게 대하고 누구는 박하게 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 ①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주도하였다.
- ② 유길준이 한반도의 중립화를 주장하였다.
- ③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였다.
- ④ 조선 정부는 미국에 보병사절단을 파견하였다.
- ⑤ 김홍집이 일본에서 가져온 조선책략이 유포되었다.

정답: ⑤

* 영남만인소와 조선책략

러시아를 막는 방책인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을 담은 책인 조선책략은 2차 수신사로 다녀온 김홍집의 소개로 국내에 유포되었다(1880).

이 책이 지식인층에 유포되면서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났다. 이에 조선에서는 미국과의 수교를 고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또한 위정척사 세력(이만손, 흥재학)의 개화 운동 반대와 결합되어 영남 만인소를 야기시켰다(1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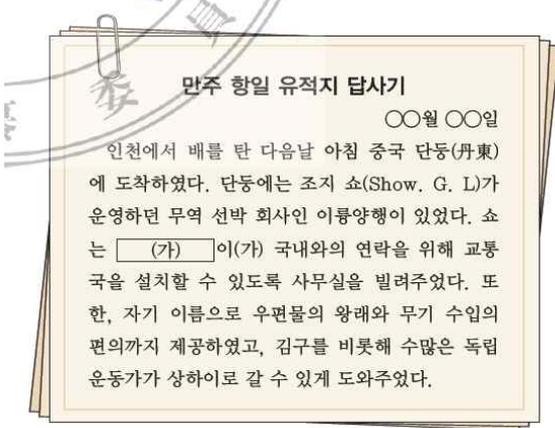
① 청과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자 만주 진출을 기도하던 러시아는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이어 일본에게 랴오둥 반도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1895, 삼국 간섭).

② 갑신정변 이후 거문도 사건 등으로 열강의 조선 침략이 격화되자, 조선 주재 독일 외교관인 부들러나 개화파 지식인 유길준 등은 조선을 중립국으로 하자는 논의를 구상하기도 하였다(1885).

③ 동학농민의 불만과 개혁 요구로 정부는 이를 반영한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 일본은 조선에 대한 간섭을 유지하기 위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 전쟁을 일으키고 개혁을 강요하였다(1894).

④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에 따라 조선 주재 미국 공사가 파견되자 정부는 미국에 보병 사절단을 파견하였다(1883).

34. (가) 단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105인 사건의 재판 기록을 찾아본다.
- ② 2·8 독립 선언서의 내용을 분석한다.
- ③ 애국 공채의 발행 과정에 대해 조사한다.
- ④ 신흥 무관 학교 설립의 목적을 알아본다.
- ⑤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의 전개 과정을 파악한다.

정답: ③

* 이룡양행과 임시정부

• **이룡양행:** 아일랜드 사람 조지 쇼가 1919년 5월 중국 단둥에 설립한 무역선박회사로 비밀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교통국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 대한 민국 임시 정부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근대적 헌법을 갖추고, 민주 공화제와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임시 정부는 입법 기관인 임시 의정원, 사법기관인 법원, 행정 기관인 국무원을 두어 3권 분립 헌정 체제를 갖추었다.

초기의 임시 정부는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민족 독립 운동을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중추 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담당하였다. 또, 연통제와 교통국 등을 통하여 독립 운동 자금 모금과 정보 수집에 기여 하였다.

임시 정부는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여 독립을 주장하였고,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두어 이승만을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한국 독립 문제를 국제 여론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또, 임시 정부는 애국 공채를 발행하고, 기관지로 독립 신문을 간행하여 배포하였으며, 사료 편찬소를 두어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① 신민회는 국내에서 문화적,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면서 점차 국외에서 독립군 기지의 건설 등 군사적 실력 양성을 꾀하였으나,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1911).

②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에 고무되어 일본에서 조선 청년 독립단(최팔용, 백관수 등)의 2·8 독립 선언이 선포되었다(1919).

④ 신민회는 국외 독립운동 기지로 남만주(또는 서간도)에 삼원보를 개척하여 독립운동 기지로 삼았다. 그리하여 경학사라는 항일 독립운동 단체가 조직되었고, 민족 교육과 군사 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신흥 강습소(후일 무관 학교)가 설립되었다(1911).

⑤ 헌정연구회를 계승한 대한 자강회는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권 회복을 목표로 삼아전국 각지에 지회를 설치하고 월보를 간행하면서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되었다(1907).

35. 다음 이권 침탈이 일어났던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 독일 : 당현 금광 채굴권 획득
- 러시아 : 울릉도 삼림 채벌권 획득
- 영국 : 은산 금광 채굴권 획득
- 일본 : 경부선 부설권 획득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⑤

* 아관파천(1896) 이후 열강의 이권침탈

아관파천 직후 정부는 친러 내각을 구성하고 이전에 추진되었던 개혁의 일부를 중단시키는 한편 각종 잡세를 줄이는 등 민심 수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함께 일본을 포함한 서구 열강들은 이권침탈을 가속화하였다.

열강들은 저마다 최혜국 조항을 내세워 광산, 삼림 등의 자원을 비롯하여 철도, 전차, 전기, 전신 등 교통과 통신 부분의 각종 이권을 차지하였다.

러시아는 삼림 채벌권을 독점하였고, 일본은 철도 부설권을 독점하였다. 미국이 차지한 운산 금광에서는 한국 전체 금 생산량의 25%를 생산하였다.

열강은 이권 획득을 위해 무력시위를 벌이거나 황실의 신임을 받는 선교사나 외교관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36. 밑줄 그은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이 단체는 서재필, 윤치호 등 근대적 개혁 사상을 가진 지식인들의 주도로 창립되었다.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문과 잡지를 발간하는 등 민중을 일깨우기 위한 계몽 운동을 벌였으며, 이를 통하여 근대적 지식과 자주 국권, 자강 개혁, 자유 민권 사상을 고취시키려 하였다.

< 보 기 >

- ㄱ. 기호 흥학회를 조직하였다.
- ㄴ.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추진하였다.
- ㄷ.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
- ㄹ. 러시아의 재정 고문과 군사 고관 철수를 요구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독립협회(1896~1898)

아관 파천으로 국가의 자주성은 손상되었고, 광산, 삼림 등에 대한 열강의 이권 침탈도 심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재필 등은 독립 신문을 창간하여 서구의 자유 민권 사상을 소개하였으며, 독립 협회를 창립하고 (1896) 자주 국권 확립을 촉구하는 구국 선언 상소문을 올리고, 종로에서 만민 공동회를 열어 자주 국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군사 고문과 재정 고문을 철수시키고, 부산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철회하였으며 한·러 은행을 폐쇄하였다.

독립 협회는 강연회와 토론회 등을 통하여 민중에게 근대적 지식과 국권·민권 사상을 고취시켜, 광범한 사회 계층의 지지를 받는 단체로 발전하였다. 또, 독립 협회는 자주 국권, 자유 민권 등을 달성하려는 정치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만민 공동회와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를 결의하고 고종은 건의문을 받아들여 시행할 것을 약속하고 중추원을 의회식으로 개편하는 관제를 반포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의회가 설립될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독립 협회의 활동은 의회의 설립과 서구식 입헌 군주제 실현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보수 세력과 대립하였다(공화제 포함). 독립 협회는 보수 세력이 동원한 황국 협회의 방해를 받았고, 결국 3년 만에 해산되고 말았다.

㉠ 기호흥학회는 정영택 등이 1908년 서울에서 조직한 교육진흥계열의 애국계몽단체.

㉡ 1920년 조선 교육회가 설립되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금 활동을 통해 최고 교육 기관인 대학을 세우자는 운동도 일어났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37. 다음 노래 가사에 나타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조선의 동무들아 이천만민아
두 발 벗고 두 팔 걷고 나아오너라
우리 것 우리 힘 우리 재조(才操)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자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자

— < 보기 —
ㄱ. 사회주의 세력의 참여로 활성화되었다.
ㄴ.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ㄷ.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ㄹ. 일본과 조선 사이의 관세 철폐 움직임에 대응하여 시작되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

1919년에 일제가 1923년부터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에서 면직물과 주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의 관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자 민족 자본은 큰 위기에 부딪혔다. 이에 1920년부터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조선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하였다.

물산 장려 운동은 이듬해 서울로 확산되었고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1923년 조선 물산 장려회가 발족하였고, 청년 학생 중심의 자작회가 중심되어 '조선 사람 조선 사람 것으로'라는 구호 아래 전국으로 번지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물산 장려 운동과 함께 전개된 청년 단체들의 금주 단연 운동, 자작자급 운동, 소비 절약 운동도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민족 자본은 물산 장려 운동으로 늘어난 수요를 만족시킬 만큼의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토산물의 가격이 상승하여 영세민의 생활 경제에 압박을 가중시켰다. 또한 물산 장려 운동은 민족의 독립이라는 목표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는 사회주의 세력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㉞ 서상돈, 김광제 등의 주도하에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 보상 운동(1907)은 각종 계몽 단체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의 언론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각계각층의 호응을 받으며 전국 및 해외(일본 유학생 및 러시아 교민도 참여)로까지 확산되었다.

38. (가)~(마)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가) - 삼별초가 대몽 항쟁을 벌였다.
- ② (나) -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 ③ (다) - 영국이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 ④ (라) - 병인박해를 구실로 프랑스군이 침략하였다.
- ⑤ (마) - 6·25 전쟁 때 포로 수용소가 설치되었다.

정답: ④

* 남해안 각 섬들의 역사

(가) 진도: 고려 삼별초의 대몽 항쟁지(강화도, 진도, 제주도) 중 하나였으며, 임진왜란 때 이순신의 명량(울돌목, 진도와 해남 사이) 대첩으로 유명하다.

(나) 완도: 통일신라기 장보고가 해상권을 장악하고 중국·일본과 무역하던 곳인 청해진으로 유명하다

(다) 거문도: 1885~1887년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3년간 불법 점령한 곳이다.

(라) 한산도: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이 학익진을 펼쳐 일본군을 대파한 곳이다.

* 병인양요는 강화도에서 일어났다.

(마) 거제도: 6.25 전쟁 중 공산군 포로수용소가 있던 곳이고 1952년 큰 폭동이 있었다.

39. (가), (나)를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의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대개 나라는 형제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제는 허물어졌으나 정신만은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나)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 사회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니라.

< 보 기 >

ㄱ. (가) - 진단 학회를 창립하고 진단 학보를 발행하였다.

ㄴ. (가) - 양명학에 토대를 두고 유교 구신론을 주장하였다.

ㄷ. (나) - 유물 사관을 바탕으로 사회 경제 사학을 확립하였다.

ㄹ. (나) - 국민 대표 회의에서 새로운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민족주의 역사학자 박은식과 신채호

(가) **박은식(1859~1925)**: 일찍이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서북학회 활동, 황성신문 주필 등의 언론 활동을 하였으며, 1909년 양명학에 토대를 둔 유교구신론을 발표하여 유교 개혁을 주장하였고, 장지연 등과 대동교를 창건하였다. 1915년 신규식 등과 동제사를

결성하였고, 이후 대한 민국 임시 정부에 참여(1925년 2대 대통령)하면서 개항기 역사를 다룬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 운동 지혈사’를 저술하여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을 규탄하였다. 특히 우리의 민족 정신을 ‘혼’으로 파악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의 독립 정신을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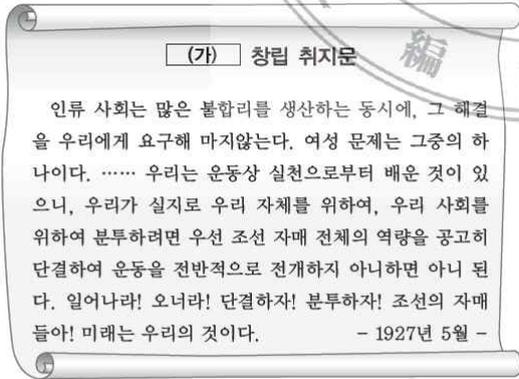
(나) **신채호(1880~1936)**: 일찍이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론”(1908)을 연재하여 왕조 사관과 사대주의를 비판하면서 민족 중심의 자주적 역사관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 후 신채호는 해외에서 독립 운동에 몸바쳐 활동하면서(초기 임정 -> 무정부주의) “조선상고사(1931)”, “조선사연구초” 등의 저술을 통해 고대사 연구에 주력하였다. 그는 고대사에 살아 숨 쉬는 자주적·주체적인 민족 고유의 사상인 ‘낭가 사상’의 존재에 주목하고, 이러한 정신을 되살려 민족 독립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1934년 이병도, 김상기 등이 국학 연구단체인 진단 학회를 설립하고 진단학보를 발간하며 실증주의 사학도 발달하였다.

㉡ 1930년대에는 백남운 등에 의해 사회 경제사학이 대두되었다. 이들은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입각하여 발전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식민주의 사관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였다.

㉢ 1923년 국민대표회의에서 임정의 존폐를 둘러싸고 토론있었는데, 임시 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창조파(신채호, 신숙, 문창범)와 임시 정부의 개조를 주장하는 개조파(안창호, 여운형, 김동삼)가 대립하였다. 두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회의는 결렬되었다.

40.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6·10 만세 운동을 후원하였다.
- ② 조선 여자 교육회의 결성에 영향을 주었다.
- ③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을 받아 해산되었다.
- ④ 국채를 갚기 위한 모금 운동에 참여하였다.
- ⑤ 신간회와 연계하여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였다.

정답: ⑤

* 신간회의 자매 여성 단체 근우회

한말 이후 신교육을 받은 여성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사회 의식도 높아졌다. 1920년대에는 여자 청년회, 부인회 등 2백여 개의 여성 운동 단체가 조직되었다. 여성 단체들은 주로 남녀 평등(가부장적 사회질서 타파), 문맹 퇴치, 구습 타파, 생활 개선 등 여성 계몽과 지위 향상에 노력하였다.

1927년 5월에는 신간회의 자매 단체로서 근우회가 창립되었다. 근우회는 강연회와 토론회 개최, 야학 설치 등을 통한 여성 계몽 활동과 함께 여성 노동자의 권익 옹호에 앞장섰다. 그러나 1931년에 신간회가 해산되면서 근우회도 해산되고 말았다.

① 6.10 만세 운동은 1926년에 있어 근우회(1927)와 맞지 않다.

② 조선여자교육회는 1920년에 결성된 여성 계몽 교육단체로서 1921년 근화학원으로 발전하고, 1938년 덕성여자실업학교가 되었다.

③ 통감부는 한일합방 이전인 1906~1910에 존재하였다.

④ 국채 보상 운동(1907)은 국채보상기성회와 서울여자교육회·대한부인회 등 수많은 여성 단체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의 언론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각계각층의 호응을 받으며 전국 및 해외(일본 유학생 및 러시아 교민도 참여)로까지 확산되었다.

41. 밑줄 그은 '이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12년 만에 고국으로 나들이 온 악기



특별전에 공개된 북

황제로 즉위한 고종은 이 개혁을 추진하여 근대 국가로의 발전에 힘썼다. 당시 정부는 자주독립 국가의 면모를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해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 참가하였고, 악기와 도자기 등을 출품하였다.

박람회를 마친 뒤에 프랑스에 기증되었던 악기들이 112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특별전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다.

- △△신문, 2012년 ○○월 ○○일 -

< 보 기 >

가. 원수부 설치	나. 영선사 파견	
다. 대한국 국제 반포	르. 교육 입국 조서 발표	

① 가, 나

④ 나, 르

② 가, 다

⑤ 다, 르

③ 나, 르

정답: ②

* 대한제국과 광무개혁(1897~1904)

러시아 공사관에서 환궁(1897) 후 고종은 연호를 광무라 고친 후 환구단을 쌓아 황제 즉위식을 하고 국호를 대한 제국이라 선포하였다. 대한 제국은 '만국공법'에 기초하여 건국된 국가로, 고종은 국내외에 대한 제국이 자주 독립 국가임을 분명히 하였다.

1899년에는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여 황제가 군대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한 전제 군주임을 강조하였다.

대한 제국은 구분신참의 원칙 아래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대한 제국은 국가의 자주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와 재정 확충, 상공업 육성에 주력하였다.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하고 황제 호위 부대를 증강하였으며, 장교 양성을 위해 무관 학교를 설립하였다.

대한 제국은 조세 수입을 늘리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양전 사업과 지계 발급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상공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여 섬유, 운수, 광업, 철도 등의 분야에서 근대적 공장과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근대적 과학 기술을 일시키기 위해 의학교, 상공학교, 외국어 학교 등을 세우고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 1881년 개화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일본에 조사 시찰단을, 청에는 영선사를 파견하였다.

㉡ 2차 갑오개혁때에 국민 교육을 위한 교육 입국 조서(1895.2)를 발표하고 근대적인 학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42. 밑줄 그은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1946년에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가 중심이 되어 조직된 이 단체는 극좌파와 극우파의 방해로 별다른 성과 없이 1947년에 해체되었다. 이 만평은 당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단체의 상황을 풍자하고 있다.



- ① 여운형과 김규식이 주도하였다.
- ② 좌익과 우익의 입장을 절충한 7원칙을 내걸었다.
- ③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 ④ 미군정의 지원이 철회되면서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 ⑤ 제 1차 미·소 공동 위원회의 결렬을 배경으로 조직되었다.

정답: ③

* 좌우합작 위원회(1946~1947)

1차 미·소 공동 위원회(1946.1)가 무기한 중단되자 좌우 세력의 대립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정읍 발언: 1946.6) 지지 세력을 모아갔다.

이승만의 정읍발언 이후 단독정부수립 움직임이 있자 남북분단을 우려한 여운형(중도 좌), 김규식(중도우) 등이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좌·우익을 절충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1946.10)하였고 미군정도 이를 후원하기도 하였으나(김규식을 과도입법의원 의장, 안재홍을 민정장관으로 임명), 1947년 미국 무부의 '트루먼 독트린' 발표 이후 냉전이 심화되며 미군정의 지원이 철회되고, 여운형의 암살 등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③ 임시정부 내의 민족연합전선 성격의 한국 독립당은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위원을 통해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건국 강령은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보장하는 삼균주의(조소앙 작성)에 입각한 건국 정신을 표방하였으며 광복을 앞두고 분열된 민족 운동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의지도 담고 있었다.

43. (가)가 시행되었던 시기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2점]

○○○씨는 유신 체제를 비판하였다가 (가)와(과)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그는 2009년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0년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가) 1호는 국회의 입법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대법원에 속한다. 당시 유신 헌법상의 발동 요건조차 갖추지 않았고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밝혔다.

- ① 거리에서 장발을 단속하는 경찰
- ② 부산에서 발췌 개헌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 ③ 금융 실명제에 따라 신분증을 요구하는 은행원
- ④ 교복 자율화 조치에 따라 사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
- ⑤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의 해산에 분노하는 시민

정답: ①

* 1970년대 긴급조치와 유신헌법 시기의 사회상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제정한 유신 헌법을 국민 투표로 확정짓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를 일체 금지시켰다. 또한 언론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노동 3권을 제한하였다.

유신 체제 하의 독재와 억압 정치에 맞서 야당과 종교인, 대학생 등은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유신 체제 반대 운동에 대해 긴급조치권 등을 이용하여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1970년대 군사 독재 정권은 대중 문화와 국민의 일상에 대한 통제·억압하였다. 그 속에는 정권의 안정을 통해 장기 독재를 추구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일상에서는 장발 단속을 하였고, 젊은 여성들도 치마도 길이를 재서 15cm가 넘으면 경범죄를 적용하여 단속하였다.

② 1952년 이승만 정권은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여당이 주장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골자로 하고, 야당이 주장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발췌, 절충하였다.

③ 1993년에 성립된 김영삼 정부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금융 실명제등을 법제화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노력하였다

④ 전두환 정권(1980~1988)은 정치적으로는 강압 통치를 하였으나 대국민적으로는 야간통행금지 폐지, 두발·교복 자율화, 프로 야구단 창단 등의 유화 정책을 폈었다.

44. 다음 결의문과 관련된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3점]

4·13 독재 헌법 옹호 선언은 민주 한국의 진정한 건국 정신과 국민의 시대적 절대 요청인 민주화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당연히 무효임을 선언하며 각계의 호헌 반대 민주 헌법 쟁취 주장을 전폭 지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적 행동을 조직 전개한다.

- ①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내각이 들어섰다.
- ② 조봉암이 혁신 세력을 규합하여 진보당을 창당하였다.
- ③ 개헌을 통해 부정 선거 관련자의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다.
- ④ 대학 교수단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시위 행진을 벌였다.
- ⑤ 여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다고 선언하였다.

정답: ⑤

* 6월 민주 항쟁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과 4·13 호헌 조치를 계기로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직선제 개헌과 민주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고(여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 발표), 여야 합의에 의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이 마련되었다.

①, ④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하여 노골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마침내 국민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터지면서 4·19 혁명이 일어났다. 교수단까지 시위(4.25)가 있자,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하였다(1960)

② 1956년 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의 조봉암은 평화 통일론을 내세우며 선전하고 진보당을 창당하였다.

④ 4.19혁명과 3차 개헌으로 장면 정권이 출범한 후 1960년 11월 3·15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축재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였으나(4차 개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45. 그림은 어느 지역의 문화유산 안내도이다. 이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 ①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 도굴을 시도하였다.
- ② 일본과의 교역을 위해 개시와 후시가 열렸다.
- ③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 학교가 세워졌다.
- ④ 국채 보상 운동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어났다.
- ⑤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일본인 거류지가 만들어졌다.

정답: ⑤

* 인천 지역의 역사

인천은 근.현대에 이르러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어 인천의 문호가 개방되고, 뒤이어 일어난 제물포조약의 결과 1883년(고종 20) 1월에는 인천항이 개항되었다. 이에 앞서 1882년 인천에 일본영사관 가청사가 설치되어 최초의 영사가 임명되었으며, 개항 후에는 거류지약서가 조인되어 1888년(고종 25)까지에는 각국의 거류지가 마련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거류지였다.

① 두 차례에 걸쳐 통상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한 독일인 오페르트는 1868년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충남 덕산 소재)를 도굴하려다 발각되어 달아났다.

② 조선 시대 일본과 교역이 열린 것은 왜관(부산 소재) 개시.후시이다.

③ 강화도조약에 따라 부산에 이어 2번째로 개항된 곳은 원산이다(1879). 1883년에는 이곳에 사립 교육 기관인 원산 학사가 설립되어 최초로 근대 교육을 하였다.

④ 국채보상운동(1907)은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46. (가), (나)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가) 요동에 따로 한 천지가 있으니
 뚜렷이 중국과 구분되어 나누어져 있도다.
 큰 파도 수 만 이랑 삼면을 두르고
 북쪽에 육지가 줄처럼 이어져 있네.
 가을때 땅덩이 천 리가 바로 조선이니
 강산의 아름다운 경치, 천하에 이름났네.

처음 누가 나라를 열고 풍운을 일으켰던가
 하느님(釋帝)의 손자, 이름하여 단군이라.
 (나)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자, 김씨가 남쪽을 차지하였고
 대씨는 북쪽을 차지하여 나라 이름을 발해라 하였다.
 그러나 마땅히 남북국의 역사가 있어야 함에도 고려가 남
 북국의 역사를 엮지 않았으니 잘못이다.

- ① (가) - 원 간섭기에 쓰여졌다.
- ② (가) -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서술하였다.
- ③ (나) -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인식하였다.
- ④ (나) -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 ⑤ (가), (나) - 우리나라 고대사를 기전체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정답: ⑤

* 제왕운기와 발해고

(가) **제왕운기(1287)**: 충렬왕 13년에 이승휴가 사찬하여 왕에게 올린 운문체로 서술한 역사서로 상(上)은 중국사, 하(下)는 한국사를 7언시, 5언시로 중국사(전설시대~원)와 본국(단군~충렬왕)의 역사를 병렬적(대등하게)으로 대비해 서술하였다.

단군 기년도 사용하였고, 단군(혈연 공동체), 기자(문화 공동체), 위만(민족 생활권)으로 이

어지는 3조선설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3한, 3국, 예맥, 부여 등 모든 고대국가들이 모두 단군의 후손이라 하고, 그 생활권을 요동 이동 지역으로서, 중국과 다른 또 하나의 천하세계로 파악하였으며, 발해를 본국 역사에 포괄하였다.

그러나 문화 의식의 폭이 식민지적 체질로 인해 제한되어서 체제가 帝 = 중국, 王 = 본국 이라는 사대적 명분론에 입각해 있어서 자주성이 삼국사기보다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한 을지문덕과 강감찬의 기록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몽고 지배에 대한 체념과 냉소적인 당시 일부 지식인들의 입장을 반영한 한계가 드러난다.

(나) **발해고(1784)** : 서얼 출신이자 규장각 4검서관 출신이며 북학파 실학자인 유득공의 발해시대 역사서.

반도 사관 탈피와 남북국 시대를 설정,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불안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백제와 신라를 대등한 국가로 인사하여, 남의 신라와 북의 발해를 남북국 시대라 부를 것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고려가 발해사를 찬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구려·발해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던 여진·거란에 대해 영토적 권리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⑤ 현존하는 고대사를 다룬 완전한 기전체 역사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뿐이며, '고려사'는 기전체 역사서이기는 하나 고려시대만 다루었다.

* 한치윤의 '해동역사'도 단군~고려까지의 역사를 다루었으나 연표가 없는 기전체 형식이다.

47. 밑줄 그은 '이 도로'가 건설되었던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2점]

서울과 부산을 잇는 이 도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건설된 고속 국도이다. 2년 5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건설 공사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전 파병으로 들어온 자금의 일부가 투입되었다.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전국 1일 생활권'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회·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 ① 정부가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②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 ③ 3저 호황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늘었다.
- ④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 ⑤ 외환 위기로 국제 통화 기금의 지원 자금이 도입되었다.

정답: ②

* 경부고속국도가 건설된 1960년대 경제상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에 시작되어 박정희 정부 때 4차까지 추진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정부 주도, 수출 위주의 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을 육성·지원하였다.

1960년대의 제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경공업과 수입 대체 산업, 국가 기간 산업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였다. 이 기간에 울산 공업 단지와 마산 수출 자유 지역이 조성되고 포항 종합 제철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또 소양강댐과 경부 고속국도(1968~1970)가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한·일 협정 체결의 대가로 들어온 외화와 베트남 파병에 따른 베트남 특수는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① IMF 경제 위기 속에서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위원회를 만들고 기업 구조 조정, 외국 자본의 유치, 부실기업의 정리 등에 힘써 2001년에는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③ 전두환 정권 때인 1980년대 중반 저환율, 저유가, 저금리의 이른바 3저 호황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지속하였다.

④ 이승만 정권 때인 1950년대의 국의 경제 원조는 한국의 산업 구조를 바꿔놓았다. 제조업에서는 제분, 제당, 면방직의 이른바 3백 산업을 비롯한 소비재 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⑤ 김영삼 정권 말기에 경제 여건의 악화와 외환 부족으로 인하여 IMF의 경제적 위기를 겪었다(1997).

48.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민속놀이로 옳은 것은? [1점]

이 민속놀이는 안동에서 계승되는 것으로, 그 유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고려군과 후백제군이 안동에서 대치할 때 안동 사람들이 왕건을 지원하여 크게 승리하였다. 이후 안동에서는 이 승리를 기념하여 마을 청년들이 동·서로 편을 나누어 서로 싸우는 이 민속놀이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①



놋다리밟기

②



동채싸움(차전놀이)

③



격구

④



석전(돌팔매놀이)

⑤



염날리기

정답: ②

* 고려-후백제의 안동 전투와 차전놀이

930년 고려와 후백제 간의 고창(안동)에서 재지 호족인 권행·김선평·장길이가 왕건을 도와 견훤을 패하게 하였는데, 그때 견훤과 합전교에서 싸울 때 큰나무를 묶어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 여러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를 앞세워 진격하였다고 한다. 이 전승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정월 보름날을 기하여 나무뭉음(동채)을 메고 싸움하는 놀이를 하였다(차전놀이).

① 안동 놋다리밟기: 공민왕이 홍건적의 침입을 피하여 왕후와 안동으로 길을 떠났는데, 개성을 떠나 문경 새재를 넘어 예천의 풍산을 거쳐 소야천의 나루에 이르렀을 때 마을 부녀자들이 나와 개울에 들어가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놓아 왕후가 발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게 한 것에서 유래하였고 음력 정월 보름에 행하여진다.

③ 격구: 한치윤의 <해동역사>에 나타나는데, 발해 사신 왕문구 일행이 889년에 일본에 가서 격구를 하였다고 한다. 당시 발해에서 격구가 매우 성행하였으며, 일본에 직접 전파하였다 한다.

<고려사>에 따르면 태조 2년에 아자개(견훤의 부) 일행의 환영식을 격구장에서 했다는 기록이 처음 나타난다. 따라서 이미 후삼국 시대에 격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무과의 과목이기도 하며, 단오 때에 행하여진다.

④ 석전: 고구려 때에 대동강에서 편을 갈라 돌팔매질 놀이를 하였다는 유래를 갖고 있는 석전은 고려·조선 시대에도 계속 이어졌고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5월 단오 때에 행하여졌다.

⑤ 염날리기: 삼국사기에 따르면 비담과 염종이 여왕 치세에 반기를 들며 난을 일으켰을 때 김유신이 반란군을 평정하기 위해 연을 만들어 전략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유래가 있다. 음력 정초에 행하여진다.

49.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시기순으로 보는 남북 교류의 역사>



1970년대에 들어와 냉전 체제의 완화, 남한의 경제 발전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남북 교류를 제의하고, 남북 간에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적십자 대표의 예비 회담을 열었다. 또, 서울과 평양에서 7·4남북 공동 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1972). 이 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이후 통일 논의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남한의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과 북한의 고려 민주주의 연방 공화국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남북한의 이산 가족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1985. 9.).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한의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이 추진되었다.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 체육의 교류도 이루어졌다. 곧이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1991. 12.),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통일 노력이 전개되어 평화 통일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민간 차원에서 현대 정주영 회장이 소떼 500마리를 이끌고 방북한 것을 기점으로 금강산 관광이 이어졌다(1998). 그리고 마침내 평양에서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2000). 또, 금강산 관광과 경의선 연결(2000.9.18~2002.12.31. 남측 완료),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등이 실현되어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

정답: ②

* 남북 간의 교류 역사

50. 다음 상황이 있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시민 환영 대회에 참석한 윤보선 대통령은 “올해 일어난 3·15 마산 학생 쫓기로 물려간 독재가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게 국민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비책으로 혁명 완수를 위해 새 정신 새 마음으로 자손들을 위한 복지 사회 건설에 힘써야 합니다. …… 국민 각자는 단결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원조 없이도 살 수 있는 국가로 부흥시켜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 ① 중국과 국교가 수립되었다.
- ② 장기 집권을 위해 3선 개헌이 단행되었다.
- ③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④ 국회가 민의원, 참의원의 양원으로 운영되었다.
- ⑤ 민주 정의당과 일부 야당이 3당 합당을 이루었다.

정답: ④

* 의원내각제 정부의 출범(1960)

4.19 시민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후 구성된 허정 과도 정부는 부정 선거를 계획한 정부 각료와 자유당 간부를 구속하였다. 국회는 6월 15일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7월 29일, 민의원과 참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민주당 후보가 대부분 당선되었다. 이후 구성된 국회에서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장면을 국무총리로 지명하여 장면 내각이 성립되었다.

① 노태우 정부는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 및 소련(1990), 중국(1992)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북방 정책을 추진하였고, 유엔에 남북한이 함께 가입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② 장기집권을 위하여 박정희 정권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으로 3선 개헌을 강행.통과시켰다(1969).

③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뒤 신군부는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상임위원장 전두환)를 조직하여 국가 주요 조직을 장악해 나가며 정권을 장악하였다.

⑤ 여소야대의 위기에 처한 노태우 정부의 민주 정의당은 김영삼이 이끄는 통일 민주당, 김종필이 이끄는 신민주 공화당과 합당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다(1990).